

五積散의 臨床 活用に 대한 方劑學的 考察

윤지연,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ABSTRACT

A Prescriptive Study of *Ojeoksan* on Clinical Application

Ji-Yeon Yun, Young-Gab Yun

Dept. of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Oriental Medical School,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intended to establish for medical treatment range of *Ojeoksan* and to help extending application of medical insurance through prescriptive research.

Methods : We analyzed 『*Dongeuibogam*』, 『*Taepyeonghaeminhwajegukbang*』 and other books

Result :

1. composition of *Ojeoksan* in 『*Dongeuibogam*』 is same as in 『*Gogumeuigam*』
2. *Ojeoksan* is composed of five kinds of basic prescriptions; Er Chen Tang, Ping Wei San, Ma Huang Tang, Si Wu Tang etc. and it used for five pathological factors; cold, energy, eating, phlegm, blood.
3. Property of *Ojeoksan* is warm so it can be used for any cold diseases.
4. *Ojeoksan* is used for 16 kinds of diseases including chest pain, abdominal pain etc.

Conclusion : *Ojeoksan* can be used for cardiovascular disorders and *Ojeoksan* is possible to apply or to extend medical insurance coverage

-
- 교신저자 : 윤용갑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Tel : 063-850-6834 Fax : 063-856-5056 E-mail : yunyg@wku.ac.kr
 - 접수 : 2012/ 11/ 14 수정 : 2012/ 12/ 03 채택 : 2012/ 12/ 12

Key word : Ojeoksan, clinical application, composition, cardiovascular disorders

1. 緒 論

五積散은 일반적으로腰痛이나肩臂痛,心腹痛,外感과內傷이 겹쳐진傷寒陰症에 활용하여 오고 있는處方이며,寒濕氣血痰이 적체되어 발생하는五積을 치료하기 위하여 창안한方劑로서 특히外感內傷의基本方으로 널리 활용되어온處方이며¹⁻²⁾ 역대 의서에서는解表,溫中,泄濕,祛痰,消痞調經之劑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³⁻⁵⁾. 한편, 2011년도 한방 56處方 요양 급여비용 심사 실적에 따르면 청구금액과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處方이기도 하여 현행 한의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處方이다.

五積散이 처음 수록된『太平惠民和劑局方』~傷寒門에는處方구성이蒼朮 24兩 桔梗 12兩, 陳皮, 枳殼, 麻黃 各6兩, 厚朴, 乾薑 各4兩, 白芍藥, 川芎, 白芷, 當歸, 甘草, 茯苓, 半夏, 肉桂 各3兩並으로 되어 있으며調中順氣, 除風冷, 化痰飲, 治脾胃宿冷하는 효능이 있어腹脇脹痛, 胸膈停痰, 嘔逆惡心等に 사용하고, 外感風寒, 內傷生冷의病理증상인心腹痞悶, 頭目昏痛, 肩背拘急, 肢體怠惰, 寒熱往來, 飲食不進 등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婦人이氣血不調하여, 心腹撮痛, 經後不勻이나不通하는데 병용하여 사용한다 하였다⁶⁾.

이와 같은『太平惠民和劑局方』의五積散의 주치나 방제구성은 현행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東醫寶鑑』이나『方藥合編』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헌적 자료검토가 필요하며 한방처방의료급여 청구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측면에서, 五積散의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方劑學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五

積散에 관련된論文⁷⁻⁸⁾을 종합해보면 五積散의鎮痛, 消炎, 항고지혈증, 급성독성시험, 신장, 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헌적 연구로는 EBM 기반 구축을 위한 五積散 연구논문분석, 임상 활용에 필요한 五積散의 문헌 고찰이 보고되고 있으나 五積散의 방제학적 관점에서 구성, 용량, 주치, 임상활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五積散의處方 구성 약물에 대한 역대 문헌의 비교와 五積散의處方구성에 대한 방제학적 분석을 五積散의 치료병증과 연관시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五積散의 임상활용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실히 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며, 한방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여『東醫寶鑑』과『太平惠民和劑局方』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五積散의 構成藥物에 대한 비교 및 기본처방 분석

1) 五積散의 構成藥物에 대한 비교

五積散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과 용량에 각종 한의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비교 검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太平惠民和劑局方』과『東醫寶鑑』⁸⁾,『古今醫鑑』⁹⁾,『萬病回春』¹⁰⁾,『景岳全書』¹¹⁾,『醫學入門』¹²⁾,『새韓方處方解說(日)』¹³⁾ 등에 기록된 五積散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Table 1. 각 한의서의 五積散 構成藥物 및 用量 비교

(단위 : 錢)

구성약물	東醫寶鑑 (方藥合編)	古今醫鑑	萬病回春	景岳全書	醫學入門	새韓方 處方解說(日)	太平惠民 和劑局方
蒼朮	2.0	2.0	1.0	1.0	0.7	2.0	24량 2.4
麻黃	1.0	1.0	0.8	1.0	0.7	1.2	6량 0.6
陳皮	1.0	1.0	1.0	1.0	0.6	2.0	6량 0.6
厚朴	0.8	0.8	1.0	0.8	0.4	1.2	4량 0.4
桔梗	0.8	0.8	1.0	0.5	0.15	1.2	12량 1.2
枳殼	0.8	0.8	1.0	0.8	0.5	1.2	6량 0.6
當歸	0.8	0.8	1.0	1.0	0.3	1.2	3량 0.3
乾薑	0.8	0.8	0.5	0.8	0.4	1.2	4량 0.4
芍藥	0.8	0.8	1.0	0.8	0.3	1.2	3량 0.3
茯苓	0.8	0.8		0.8	0.3	2.0	3량 0.3
白芷	0.7	0.7	1.0	0.7	0.3	1.2	3량 0.3
川芎	0.7	0.7	1.0	0.4	0.3	1.2	3량 0.3
半夏	0.7	0.7	1.0	0.4	0.3	2.0	3량 0.3
桂皮	0.7	0.7	0.5	0.5	0.3	1.2	3량 0.3
甘草	0.6	0.8	0.3	0.5	0.3	1.2	3량 0.3
白朮						2.0	
香附子						1.2	
大棗						1.2	
人蔘				0.5			
비고	生薑, 蔥白 추가	東醫寶鑑과 거의 동일, 감초의 양이 다소 증가	蒼朮, 麻黃의 용량 다소 적음. 나머지 약물 용량은 다소 많음.	蒼朮의 용량이 절반	生薑, 蔥白 추가. 용량이 절반 이하	용량이 소량 (단위 g)	蒼朮, 桔梗 다소 많음. 나머지 약물은 용량이 적음.

各 醫書에서 五積散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동의보감』에 수록된 五積散의 구성 약물과 용량은 『古今醫鑑』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감초의 양만 다소 증량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醫學入門』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 『醫學入門』에 기록된 용량과 비교하여 보면, 처방구성 약물은 동일하나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적은 분량으로 나타나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수록된 내용과 시대별 도량형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창출과 길경의 사용량이 『東醫寶鑑』의 용량에 비하여 다소

많아져 있고, 나머지 약물들은 모두 소량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東醫寶鑑』의 五積散에 대한 구성약물과 사용량이 『古今醫鑑』 내용과 가장 近似함을 알 수 있다.

2) 五積散의 基本處方 분석

五積散을 구성하고 있는 藥物들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대표적인 基本方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處方의 效能은 그 處方을 형성하고 있는 基本處方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積散에 포함된 대표적인 基本處方을 분석해보면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平胃散, 麻黃湯(桂枝湯), 二陳湯, 桔梗枳殼湯, 四物湯類로 분석되며 이러한 基本處方들의 病理와 主治 작용들이 합해진 것이 五積散의 效能이 되기

때문에 五積散은 食積, 寒積, 痰積, 氣積, 血積 등의 5가지 積을 치료하는 處方이 된다.

Table 2. 五積散에 포함된 基本處方 분석

구성약물	基本處方	비고
蒼朮	平胃散 (蒼朮, 陳皮, 厚朴, 甘草)	食積
麻黃		
陳皮	麻黃湯類 桂枝湯[麻黃, 桂枝, 乾薑(生薑), 甘草]	寒積
厚朴		
桔梗	二陳湯 (半夏, 陳皮, 茯苓, 甘草)	痰積
枳殼		
當歸	四物湯類 (當歸, 川芎, 白芍藥, 甘草) (理血湯)	血積
乾薑		
白芍藥	桔梗枳殼湯 (桔梗, 枳殼, 甘草)	氣積
茯苓		
白芷		
川芎		
半夏		
桂皮		
甘草		

五積散은 平胃散, 麻黃湯(桂枝湯), 二陳湯, 四物湯類, 桔梗枳殼湯을 합하고 乾薑, 白芷를 가미한 方劑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食積, 寒積, 痰積, 血積, 氣積 등 다섯 가지 積을 치료할 수 있는 方劑이다¹³⁻¹⁵⁾.

2. 『東醫寶鑑』에 수록된 五積散의 임상활용

『東醫寶鑑』중 五積散을 內傷病에 활용하고 있는 병증은 冷心痛, 心腹並痛, 瘀血胃脘痛, 臍腹痛, 寒腹痛, 腹中鳴 등이 있다. 傷寒病에서는 五積散을 傷寒陰證, 四時傷寒 등에 활용하였으며, 運動器病에서는 五積散을 瘀血腰痛, 風腰痛, 寒腰痛, 濕腰

痛, 肩臂寒痛, 鶴膝風, 寒濕, 身體冷痛 등에 사용하고 있다. 婦人病에는 崩漏, 帶下, 그밖에 外科疾患으로 癰癤 등에 五積散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五積散을 18개 病症에活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五積散의 活用 내용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Table 2-1, 2-2, 2-3>.

Table 2-1. 內傷病에 대한 五積散의 활용

病症	五積散 活用(加減)
1. 冷心痛	形寒飲冷 當風臥涼 或腎邪乘心 痛則心懸若飢腰痛 泄利下重 宜五積散 『入門』
	▶ 病因 : 1. 形寒飲冷 2. 當風臥涼 3. 腎邪乘心
	▶ 증상 : 痛則心懸若飢, (腰痛) 泄利 下重
	▶ 참고 : 寒氣客於背俞之脉 則血脉澁 血脉澁 則血虛 血虛則痛 其俞注於心 故相引而痛『內經』
	▶ 案 五積散의 構成處方과의 관계 1. 五積散은 溫性處方임.(交加散)

	<p>2. 四物湯은 血의 處方임. 3. 관상동맥의 혈류순환과의 연관성. 4. 참고 : 『醫學入門』에는 當風取涼이 臥涼으로 되어 있고 증상에 腰痛, 泄利 下重으로 되어 있음. 즉 腰痛이 東醫寶鑑에는 빠져있음¹²⁾.</p>
<p>2. 心腹 並痛</p>	<p>心腹並痛 宜二炒香良散二胡散厚朴湯桂靈散鷄舌香散(方見上) 蟠葱散(方見前陰)五積散(方見寒門)備急丸(方見救急)蘇合香元(方見氣門)</p> <p>▶案 : 心腹痛 病因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1. 五積散에 理氣하는 桔梗枳殼湯과 理血하는 四物湯類가 合方되어 있으므로 心痛에 活用 가능함. 2. 五積散에는 芍藥甘草湯, 平胃散, 二陳湯이 合方되어 있으므로 腹痛에 사용이 가능함. 3. 따라서 心腹痛이 並痛할 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구체성이 불분명함 : 다른 병행 處方들은 理氣之劑가 主流임.</p>
<p>3. 瘀血 胃脘 痛甚者</p>	<p>五積散加三稜 蓬朮 桃仁 紅花 婦人瘀血入心脾 痛甚者 五積散(方見寒門)加三稜 蓬朮 桃仁 紅花『入門』</p> <p>▶ 病因 : 瘀血入心脾 ▶ 증상 : 痛甚者(구체적인 瘀血痛의 특징은 기술되지 않음) ▶ 案 1. 五積散 處方 구성 중 熟地黃이 除外된 四物湯에 桃仁, 紅花를 配伍하면 桃仁四物湯類가 되므로 瘀血治療의 基本方임. 2. 여기에 三稜과 蓬朮을 配合하여, 破氣行滯하므로 有形無形의 瘀血을 모두 다스릴 수 있음. 3. 五積散과 같이 사용된 처방은 失笑散, 玄胡索散, 勝金散은 모두 活血祛瘀 止痛之劑임.</p>
<p>4. 臍腹痛 腹痛 有部分</p>	<p>五積散(三方)加吳茱萸主之 腹痛有部分 中脘痛 太陰也 理中湯 加味小建中湯 草豆蔻丸之類主之 臍腹痛 少陰也 四逆湯 薑附湯 或五積散 加吳茱萸主之 小腹痛 厥陰也 當歸四逆湯 加吳茱萸主之</p> <p>▶ 腹痛을 三部分으로 구분하고 치료법이나 處方을 달리 하고 있는데 五積散은 少陰이고 臍腹痛에 사용함. 1) 中脘痛 : 太陰 : 理中湯, 加味小建中湯, 草豆蔻丸之類主之 2) 臍腹痛 : 少陰 : 四逆湯, 薑附湯或五積散加吳茱萸主之 3) 小腹痛 : 厥陰 : 當歸四逆湯加吳茱萸主之 ▶ 案 1. 五積散의 處方구성은 二陳湯, 平胃散, 桔梗枳殼湯, 四物湯類, 麻黃湯(桂枝湯)에 乾薑, 白芷를 配伍한 方劑임. 2. 전체적인 藥性은 桂枝, 乾薑, 半夏 등이 배합되어 있어 溫하며, 溫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吳茱萸가 배합된 것으로 보여짐.</p>
<p>5. 寒腹痛 (冒寒 卒痛)</p>	<p>五積散加吳茱萸葱白 寒氣客於脉外則脉寒 脉寒則縮綫 縮綫則脉絀急 絀急則外引小絡故卒然而痛 因重中於寒 則痛久矣『內經』綿痛而無增減者寒痛也 冒寒卒痛五積散 加吳茱萸葱白『入門』</p> <p>▶ 원인 : 寒氣客於脉外則脉寒 脉寒則縮綫 縮綫則脉絀急 絀急則外引小絡 ▶ 증상 : 卒然而痛 重中於寒 痛久 綿綿痛而無增減者寒痛也 ▶ 案 1. 五積散 處方構成 中 桂枝湯, 麻黃湯類는 風寒邪를 發散함. 2. 芍藥甘草湯은 일반 腹痛을 다스리며 半夏 乾薑, 吳茱萸, 葱白은 辛溫之劑이며 白芷는 止痛함. 3. 또한 五積散은 전체적으로 藥性이 溫한 處方이므로 五積散을 寒腹痛에 활용할 수 있음.</p>

<p>6. 腹中鳴</p>	<p>(亦有藏寒有鳴者宜)五積散 脾氣虛則腹滿腸鳴 有藏寒有水而鳴者宜五積散(方見寒門)或理中湯(方見寒門)加吳茱萸赤茯苓</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脾虛, 藏寒, 有水 ▶ 증상 : 腹滿, 腸鳴, 腹中鳴 ▶ 案 : 五積散에는 脾의 運化에 관련된 平胃散 水氣와 痰飲에 관련된 二陳湯, 寒에 관련된 乾薑이 포함되어 있고, 五積散의 藥性이 溫하므로 活用이 가능함.
<p>7. 傷寒 陰證</p>	<p>五積散加附子 凡傷寒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此陰證之常也 須察其脉有力無力 如重按無力或 無脉便是伏陰 急與五積散加附子 如脉有力是陽證也不可辨『入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外感傷寒, 內傷 ▶ 증상 :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謐, 脉重按無力 或無脉 ▶ 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五積散에는 傷寒에 活用하는 桂枝湯, 麻黃湯類가 合方되어 있음. 2. 內傷에 活用하는 平胃散, 不換金正氣散類 二陳湯이 合方되어 있음. 3. 四肢厥冷에 사용하는 附子, 溫中하는 乾薑이 포함되어 있음. <p>一方 除白芷肉桂 餘材慢火炒令色變 攤冷 入桂芷 名曰熟料五積散, 不炒者 曰生料五積散.(海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熟料五積散은 白芷와 肉桂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제를 慢火로 색이 변할 정도까지 炒한 다음 식혀서 白芷와 肉桂를 넣는 것이고 炒하지 않으면 生料五積散이라 함. ▶ 五積散의 藥性은 溫함.
<p>8. 感寒及 四時 傷寒</p>	<p>五積散性溫 敗毒散性涼 凡人遇些少感冒 取兩藥對半 合和煎服 則邪氣自散矣(二方見上)</p>

Table 2-2. 運動器病에 대한 五積散의 활용

<p>病 症</p>	<p>五積散 活用(加減)</p>
<p>9. 瘀血腰痛</p>	<p>五積散去麻黃加木香檳榔茴香炒 瘀血腰痛宜肉桂湯,地龍散, 桃仁承氣湯 久者五積散去麻黃加桃仁紅花木香檳榔茴香炒, 或四物湯加桃仁蘇木酒紅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瘀血腰痛의 치료원칙은 活血祛瘀이며, 桃紅四物湯은 活血祛瘀의 기본방임. 2. 五積散에는 이미 四物湯이 合方되어 있으므로 桃仁紅花만을 배합함. 3. 活血祛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理氣 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桔梗枳殼湯에 木香, 檳榔, 茴香을 배합하여 理氣 작용을 강화함. 4. 한편 瘀血腰痛은 不內外因病이며 이는 外感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外感에 사용하는 麻黃湯의 主藥인 麻黃을 제외함. 5. 참고 : 『入門』¹²⁾ 五積散祛麻 加 茴香 木香 檳榔
<p>10. 風腰痛</p>	<p>五積散(方見寒門)加防風全蝎 風傷腎 而腰痛者 或左或右痛無常所 引兩足強急 五積散(方見寒門)加防風全蝎 或烏藥順氣散(方見風門)加五加皮 痛勢甚者加味龍虎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風傷腎 而腰痛者 ▶ 증상 : 左或右痛 無常所引, 兩足強急 ▶ 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五積散 中 四物湯類는 養筋하고 麻黃湯類는 祛風하며, 芍藥甘草湯은 鎮痛하며 桔梗枳殼湯은 理氣하므로 五積散을 筋肉運動器病에 활용할 수 있음. 2. 風으로 腎을 傷하게 하여 腰痛이 생기면 五積散에 防風과 全蝎을 배합하여 사용함.

	<p>3. 五積散에는 養筋하는 四物湯類, 祛風하는 麻黃湯類와 鎮痛하는 芍藥甘草湯이 합방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防風으로 麻黃湯과 더불어 祛風작용을 돕고 全蝎은 芍藥甘草湯과 더불어 兩足強急을 도움.</p> <p>4. 五積散에 防風과 全蝎을 배합하여 風으로 요통이 생겨서 좌측이나 우측이 아프고 항상 당기지는 않지만 양쪽 다리가 뻣뻣해지고 아픈 증상에 활용할 수 있음.</p>
<p>11. 寒腰痛</p>	<p>五積散加吳茱萸杜冲桃仁 寒傷腎經腰痛不能轉側,見熱則減 遇寒則發,脉沈弦急 五積散加吳茱萸杜冲桃仁 痛甚加黑丑頭末一錢調服</p> <p>▶ 원인 : 寒傷腎經 ▶ 증상 : 腰痛不能轉側,見熱則減 遇寒則發,脉沈弦急 ▶ 案</p> <p>1. 五積散의 藥性は 溫하므로 寒으로 인한 모든 병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吳茱萸를 배합하면 溫성이 강화되며, 五積散에 포함된 四物湯類와 杜冲은 養筋하거나 強筋骨하는 작용이 있으며, 여기에 桃仁을 배합하면 活血작용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桔梗枳殼湯이 합하여 理氣하므로 不能轉側에도 도움이 됨.</p> <p>2. 한편 芍藥甘草湯은 모든 근육통을 완화시켜주고 鎮痛진경 작용이 있음. 그러므로 五積散에 吳茱萸, 杜冲, 桃仁을 배합하여 寒腰痛에 사용할 수 있음.</p>
<p>12. 濕腰痛</p>	<p>五積散加桃仁吳茱萸最效 久處卑濕 雨露浸淫 腰重痛 如石冷 如水 五積散加桃仁吳茱萸最效<得效> 治露宿寒濕之地腰痛不能轉側</p> <p>▶ 원인 : 久處卑濕, 雨露浸淫 ▶ 증상 : 腰痛 如石冷 如水 ▶ 案 : 卑濕한 곳에 오래 거처하거나 雨露 침습하여 허리가 무겁고 마치 바위와 얼음같이 차갑고,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경우, 五積散에 桃仁, 吳茱萸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는 寒腰痛과 원인증상이 비슷하다. 따라서 寒腰痛의 활용에 준함.</p>
<p>13. 肩臂寒痛</p>	<p>五積散 臂爲風寒濕所搏 或睡後手在被外 爲寒邪所襲 遂令臂痛 或乳婦以臂枕兒傷於風寒亦致 臂痛寒痛宜五積散 風痛宜烏藥順氣散 濕痛宜蠲痺湯加蒼朮酒防己</p> <p>▶ 원인 : 風寒濕所搏 : 寒邪所襲(睡後手在被外) : 傷於風寒(乳婦以臂枕兒) ▶ 증상 : 臂痛 ▶ 치법 : 寒痛 : 五積散 風痛 : 烏藥順氣散 濕痛 : 蠲痺湯加蒼朮酒防己 ▶ 案 : 五積散은 寒을 없애는 溫性之劑에 乾薑이 포함된 止痛하는 白芷, 溫經通絡하는 桂枝, 乾薑, 理氣하는 桔梗枳殼湯 祛濕痰하는 平胃散, 二陳湯이 섞여진 方劑이므로 風寒濕臂痛에 活用 가능.</p>
<p>14. 鶴膝風</p>	<p>五積散加松節 患痢後 脚痛痿弱 不能行履 名曰痢風 或兩膝腫大 痛 髀脛枯腊 但存皮骨 如鶴膝之節 拘攣踈臥 不能屈伸 大防風湯主之. 鶴膝風 乃足三陰虛損, 風邪乘之, 痛者五積散加松節 『醫學入門』p.200</p> <p>▶ 원인 : 足三陰虛損風邪乘 ▶ 증상 : 脚痛痿弱 不能行履 或兩膝腫大痛 髀脛枯腊 但存皮骨 如鶴膝之節 拘攣踈臥 不能</p>

	<p>屈伸</p> <p>▶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리에 관련된 경락(三陰經)이 약해진 상태에, 風邪가 침범하여 鶴膝風이 되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五積散에 鎮痛작용이 있는 松節을 加하여 活用함. 2. 五積散에는 風寒邪를 없애주는 桂枝湯, 麻黃湯이 合方되어 있고, 筋骨을 養하는 四物湯類가 있음. 3. 五積散의 전체적인 藥性이 溫하므로 寒證에는 모두 活用할 수 있고 松節은 白芷와 더불어 強한 鎮痛작용이 있음.
<p>15. 寒濕 身體冷痛</p>	<p>五積散 寒濕交攻身體冷痛, 生料五積散 夫寒濕屬陰 燥熱屬陽 人之爲病不過二者而已 善用藥者以苦寒而泄其陽 以辛溫而散其陰 病之不愈者未之有也 余嘗以防風通聖散治熱燥 生料五積散治寒濕各得其效也『醫鑑』</p> <p>▶ 원인 : 寒濕, 交攻 ▶ 증상 : 身體冷痛 ▶ 案 : 生料五積散은 生用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五積散이 溫性藥이고 二陳湯, 平胃散 등이 祛濕하고 麻黃湯類와 桂枝湯이 祛寒發散하므로 寒濕으로 身體冷痛에 使用이 가능함.</p>

Table 2-3. 부인병 및 기타 질환에 대한 五積散의 활용

病 症	五積散 活用(加減)
<p>16. 崩漏</p>	<p>先服五靈脂末, 後用五積散加防風荊芥入醋煎服 血崩乃經血錯亂淪溢妄行遽之則便有積瘀凝成窠白不止則又恐昏暈 必先服五靈脂末(名獨行散)一錢溫酒調下其性能行血止血 然後用五積散(方見寒門)加防風荊芥入醋煎服一二貼</p> <p>▶ 원인 : 經血錯亂淪溢妄行 ▶ 증상 : 遽之則便有積瘀凝成窠白 不止則又恐昏暈 ▶ 치료 : 先服五靈脂末一錢溫酒 調下其性能行血止血 : 然後用五積散加防風荊芥入醋煎服一二貼 ▶ 案 : 五積散에는 四物湯類가 포함되어 있어 月經病의 基本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荊芥와 防風은 止血과 祛風하면서 眩暈을 다스릴 수 있음.</p>
<p>17. 五色帶下</p>	<p>五積散去麻黃加荊芥穗 所下五色各應五藏 五藏俱虛五色併下 是皆血之爲病也.<得效>○五色帶下宜胃風湯(方見大便) 五積散(方見寒門)去麻黃加荊芥穗 伏龍肝散(方見上)溫清飲 地榆散 香附散</p> <p>▶ 원인 : 血之爲病, 五藏俱虛 ▶ 증상 : 五色帶下 ▶ 案 1. 帶下는 外感病과 관련이 없는 病症이므로 麻黃을 祛하였음. 2. 血病 및 虛證과 관련이 있으므로 四物湯類가 포함된 五積散에 收斂止血作用이 있는 荊芥를 配伍하였음.</p>
<p>18. 瘰癧</p>	<p>五積散 治瘰癧 烏鷄卵一枚穿頂納斑猫一箇紙封其竅蒸熟去猫日一服煎五積散(方見寒門)送下四五枚即效『入門』</p> <p>▶ 瘰癧에 斑猫를 넣어 삶은 계란과 五積散을 병용함.</p>

Ⅲ. 考 察

1. 內傷病症에 대한 五積散의 活用

1) 冷心痛

그 원인이 形寒飲冷, 當風取涼하거나 腎의 邪가 心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心에 무엇인가 매달려 있거나 아프거나 泄瀉나 痢疾 증상이 있을 때 五積散을 사용한다 하였다.

이는 『내경』에 寒氣가 血脈을 澁하게 하고 血脈이 澁하면 血虛가 되고 血虛가 되면 痛症이 생긴다고 하였듯이, 五積散은 處方 구성이 四物湯類(理血湯)가 함방되어 있어 血虛와 活血을 돕고 寒氣가 침범하였기 때문에 (形寒飲冷)(當風取涼) 五積散의 溫性이 寒氣를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芍藥甘草湯도 포함되어 있어 鎮痛작용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腎邪가 心을 乘한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冷心痛은 지금의 관상동맥의 혈류순환 장애로 인한 痛症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心腹並痛

心腹並痛에 五積散이나 理氣之劑인 香良散, 蟠葱散, 蘇合香元을 並行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溫하거나 理氣之劑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즉 五積散에는 溫性이 있는 乾薑, 肉桂, 麻黃 등이 포함되어 있고 理氣之劑인 桔梗枳殼湯이 合方되어 있으며, 鎮痛작용이 있는 芍藥甘草湯이 合方되어 있으므로 心腹並痛에 活用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 瘀血胃腕痛甚者

瘀血胃腕痛(甚)者에서는 그 원인이 瘀血이 心脾에 들어간 경우이며 증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痛症만 甚하다고 되어 있다. 五積散에는 熟地黃이 去해진 四物湯류와 芍藥甘草湯이 合해진 理血湯이 포함되어 있으며, 四物湯類에 活血祛瘀

之劑인 桃仁, 紅花를 合하면 桃紅四物湯類가 되어 理血湯과 더불어 活血祛瘀의 기본處方이 된다. 또한 三陵과 逢朮을 配合하면 破氣行滯하는 효능이 발휘되므로 有形의 積滯도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五積散과 더불어 병용하고 있는 失笑散, 玄胡索, 勝金散은 모두 活血祛瘀 止痛之劑이다. 瘀血로 인한 心脾痛이 어떤 증상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위경련 등의 증상에 가까운 병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臍腹痛

『東醫寶鑑』에서는 腹痛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위에 따라 中脘痛, 臍腹痛, 小腹痛으로 분류하고 中脘痛을 太陰이라 하고 理中湯類로 사용하고, 臍腹痛은 少陰이라 하고 四物湯이나 五積散에 吳茱萸를 加하여 사용하고, 小腹痛은 厥陰이라 하고 當歸四逆湯에 吳茱萸를 加味하여 사용한다 하였다. 五積散은 性이 溫하며 腹痛에 活用할 수 있는 芍藥甘草湯이 合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活用이 가능하다고 본다. 五積散은 二陳湯, 乾薑, 甘草, 肉桂, 麻黃 등 辛溫한 藥性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의 藥性이 溫한 處方인데, 吳茱萸까지 配合되면 溫性은 強化된다. 따라서 四逆湯, 薑附湯과 더불어 五積散에 吳茱萸를 處方한 臍腹痛(少陰) 즉 寒性腹痛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腹痛의 원인을 분석할 때 臍腹痛이 積熱이나 痰火가 많다고 한 것은 傷寒六經의 病理분석과는 다른 견해이다.

5) 寒腹痛

寒腹痛의 원인은 寒氣가 脈外로 침범하여 脈이 縮絀하고 紕急하고 小絡을 위하여 卒然히 痛이 생기거나, 寒에 中하여 痛이 생기며 綿綿히 痛症이 있고 증감이 없으면 寒痛이라 하였으니 寒腹痛에는 五積散에 吳茱萸와 蔥白을 加味하여 사용한다. 寒腹痛과 臍腹痛은 모두 寒氣(邪)가 主要原因이므로 五積散의 活用이 同一하며, 蔥白을 加味하여 辛溫한 性질을 強化한 것에 불과하다.

6) 腹中鳴

腹中에 鳴이 생기는 원인은 脾虛하거나 寒한 것을 藏하였거나 水氣가 있을 때이며 증상은 腹部가 脹滿하고 腸鳴한다. 五積散은 脾의 運化작용에 관련된 平胃散과 痰飲이나 水氣를 없애주는 二陳湯이 포함되어 있고 溫性이 있는 乾薑과 肉桂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腹中鳴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본다.

7) 傷寒陰證

傷寒陰證은 傷寒으로 四肢가 厥冷하고 吐利가 있으며 不渴하며 靜澗하면 陰證이라 하는데 外感과 더불어 內傷이 兼한 病理이다. 傷寒脈은 浮하지만 傷寒陰證의 脈은 無力하거나 脈이 無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五積散에는 外感에 사용하는 麻黃湯類, 桂枝湯이 포함되어 있으며 內傷에 사용하는 平陳湯과 不換金正氣散類와 특히 四肢厥冷에 사용할 수 있는 附子를 加味하여 사용한 것이 특이할 만하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이나 『方藥合編』에서는 五積散을 傷寒陰證에 속하는 處方으로 分類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感寒及四時傷寒

四時傷寒이나 傷寒에 五積散을 활용하는 경우 五積散과 敗毒散을 합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五積散은 溫하고 敗毒散은 涼하므로 두 處方을 半半씩 合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가벼운 傷寒證에는 活用한다.

2. 運動器病에 대한 五積散의 활용

1) 瘀血腰痛

瘀血腰痛의 치료 원칙은 活血祛瘀에 있으므로 活血祛瘀의 기본 處方인 桃紅四物湯을 활용할 수 있다. 五積散에는 이미 四物湯이 合方되어 있기 때문에 桃仁 紅花를 배합하였으며 活血祛瘀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理氣 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桔梗枳殼湯에 木香, 檳榔, 茴香을 배합하여 理氣 작용을 강화시켰다. 한편 瘀血腰痛은 不內外因病이다. 이는 外感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外感에 사용하는 麻黃湯의 주약인 麻黃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외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五積散에서는 四物湯類 桔梗枳殼湯이 合方되어 있기 때문에 桃仁 紅花를 배합하여 桃紅四物湯으로 活血祛瘀를 主로 하고, 木香, 檳榔, 茴香을 합하여 理氣작용을 강화시켜 活血祛瘀 작용을 돕고, 外感에 사용하는 麻黃을 제외시켜서 瘀血腰痛에 활용이 가능한 處方으로 변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風腰痛

風으로 腎을 傷하게 하여 腰痛이 생기면 五積散에 防風과 全蝎을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五積散에는 養筋하는 四物湯類, 祛風하는 麻黃湯類와 鎮痛하는 芍藥甘草湯이 合方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防風으로 麻黃湯과 더불어 祛風작용을 돕고, 全蝎은 芍藥甘草湯과 더불어 兩足強急을 돕는다. 그러므로 五積散에 防風과 全蝎을 配合한 처방은 風으로 腰痛이 생겨서 좌측이나 우측이 아프고 항상 당기지는 않지만 양쪽 다리가 뻣뻣해지고 아픈 증상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寒腰痛

寒이 腎經을 傷하게 하면 腎은 腰에 해당하므로 腰痛이 심하여 허리를 돌리 수가 없으며, 따뜻하게 하면 증상이 緩和되고, 찬 기운을 만나면 腰痛이 생기는 것으로 맥이 沈하고 弦하면서 급한 증상이 寒腰痛이다.

五積散의 藥性은 溫하므로 寒으로 인한 모든 병증에 활용할 수 있으며 吳茱萸를 배합하면 溫性이 강화되며, 五積散에 포함된 四物湯류와 杜冲은 養筋하거나 強筋骨하는 작용이 있으며, 여기에 桃仁을 배합하면 活血작용까지 겸할 수 있으며, 桔梗枳殼湯이 합하여 있으므로 理氣하므로 不能轉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芍藥甘草湯은 모든 근육통을 완화시켜주고 鎮痛, 鎮痙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五積散에 吳茱萸, 杜冲, 桃仁을 배합하여 寒腰痛에 사용할 수 있다.

4) 濕腰痛

卑濕한 곳에 오래 거처하거나 雨露 침습하여 허리가 무겁고 마치 바위와 얼음같이 차갑고,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경우, 五積散에 桃仁, 吳茱萸를 배합하여 사용한다. 이는 寒腰痛과 원인증상이 비슷하다. 따라서 寒腰痛의 활용에 準한다.

5) 肩臂寒痛

五積散은 寒을 없애는 乾薑이 포함된 溫性之劑인데, 여기에 止痛하는 白芷, 溫經通絡하는 桂枝, 乾薑, 理氣하는 桔梗枳殼湯, 祛濕痰하는 平胃散, 二陳湯이 습해진 方劑이므로 風寒濕 臂痛에 活用할 수 있다.

6) 鶴膝風

風邪와 관련된 질환에는 鶴膝風도 여기에 속한다. 다리에 관련된 경락(三陰經)이 약해진 상태에, 風邪가 침범하여 鶴膝風이 되어 痛症이 있는 경우에는 五積散에 鎮痛작용이 있는 松節을 加하여 活用하였다. 五積散에는 風寒邪를 없애주는 桂枝湯, 麻黃湯이 습되어 있고, 筋骨을 養하는 四物湯類가 있으며 五積散의 전체적인 藥性이 溫하므로 寒證에는 모두 活用할 수 있으며, 松節은 白芷와 더불어 강한 鎮痛작용이 있다.

7) 寒濕

五積散이 溫性藥이고 二陳湯이 平胃散 등이 祛濕하고 麻黃湯類와 桂枝湯이 祛寒發散하므로 寒濕으로 身體冷痛에 使用이 가능하다.

3. 婦人病 및 기타 질환에 대한 五積散의 활용

1) 崩漏

血崩이란 月經으로 나와야 할 血이 착란되어 넘쳐나서 마구 돌다가 나오는 것인데 갑자기 멈추게 하면 곧 瘀血이 물려 엉겨서 병이 심해지고 그치지 않으면 昏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五靈脂 分末을 溫酒에 타서 복용하여 行血止血하고, 그 뒤에 五積散에 防風과 荊芥를 加味하여 止血과 眩暈을 다스린다. 五積散에는 四物湯類가 포함되어 있어 月經病의 基本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荊芥와 防風은 止血과 祛風하면서 眩暈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배합한 것으로 보인다.

2) 五色帶下

帶下는 外感病과 관련이 없는 病이므로 麻黃을 祛하였으며 血病 및 虛證과 관련이 있으므로 四物湯類가 포함된 五積散에 收斂止血作用이 있는 荊芥를 配伍하였다.

3) 瘰癧

瘰癧에 斑猫를 넣어 삶은 계란과 五積散을 병용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五積散은 寒, 食, 痰, 氣, 血의 病理로 發生할 수 있는 여러 가지 瘀血 諸病 중 『東醫寶鑑』에서는 18가지의 病症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관계 藥物을 배합하여 活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 족부에 고시된 요양급여 처방에서 五積散의 適應症 중에 심혈관계 장애로 일어날 수 있는 心胸部의 痛症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五積散에 대한 處方構成과 臨床活用に 대한 文獻的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五積散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이 原典이지만, 『東醫寶鑑』에 수록된 五積散의 처방 구성과 용량은 『古今醫監』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2. 五積散은 寒積, 食積, 氣積, 痰積, 血積 등 五積을 다스리는 方劑이기 때문에 ‘五積散’이라고 하였으며, 五積散 구성의 基本方은 桂枝湯(麻黃湯), 平胃散, 桔梗枳殼湯, 二陳湯, 四物湯類이며, 여기에 乾薑과 白芷를 加味하였다.
3. 五積散의 藥性은 溫하므로 寒으로 인한 모든 病症과 活血祛瘀 病理에 대한 病症에 주로 활

용하고 있다.

4. 東醫寶鑑에서 활용하고 있는 病症은 內傷病에는 冷心痛, 心腹並痛, 瘀血胃脘痛甚者, 臍腹痛, 寒腹痛, 腹中鳴, 傷寒病에는 傷寒陰證, 感寒及四時傷寒, 運動器病에는 瘀血腰痛, 風腰痛, 寒腰痛, 濕腰痛, 肩臂寒痛, 鶴膝風, 寒濕身體冷痛, 婦人病 및 기타 질환에는 崩漏, 五色帶下, 瘰癧 등으로 모두 18개 病症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각 病症에 五積散을 활용하고 있는 方劑學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1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參考文獻

1. 尹吉榮, 東醫 臨床方劑學. 서울:明寶出版社. 1985:50.
2. 裴秉哲 編著, 標準臨床方劑學. 서울:성보사. 1995:206.
3. 李飛, 方劑學.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2:763.
4. 彭怪仁, 東醫 方劑大辭典 제2책.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362.
5.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5:54.
6. 盧永範, 五積散 活用に 대한 文獻的 考察. 大韓 韓醫學 方劑學會誌 創刊號. 서울:醫聖堂. 1990 :72-86.
7. 이남현, 하혜경, 이호영, 정다영, 최지윤, 이준경, 신현규. EBM 基盤構築을 위한 五積散 研究 論文 分析.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2008:16(2):1-10.
8. 許浚, 東醫寶鑑. 서울:法人文化社. 1999:369, 374, 663, 668, 670, 696, 697, 702, 713, 714, 715, 768, 788, 1017, 1066, 1089, 1480.
9. 龔信, 龔廷賢, 古今醫鑑. 北京:江西科學技術 出版社. 1990:73, 74.
10. 龔廷賢 撰, 萬病回春. 서울:法人文化社. 2007: 193, 194.
11. 張介賓, 景岳全書. 서울:法人文化社. 2007:1081.
12. 李 延, 國譯編註 醫學入門(VI). 서울:南山堂. 1974:200, 239, 224, 339.
13. 矢數道明, 새韓方處方解說. 서울:保健新報. 1985:399.
14. 康舜洙, 바른 方劑學. 서울:大成文化社. 1996:260.
15. 汪昂, 國譯 醫方集解. 서울:大成文化社. 1984:119, 195.
16. 尹用甲,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서울:醫聖堂. 1998:90.